

영장류 사용량의 극심한 변동성 (2018-2024)

국내 영장류 사용량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백신 개발 수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. 팬데믹 특수와 포스트 코로나 안정화 시기를 거치며, 사용량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



2021년 영장류 통계의 역설과 3.3배의 격차

분석 기간 중 정점이었던 2021년, 수입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는 거대한 수치적 공백이 존재합니다. 이는 단순히 통계적 오차가 아닌, 비임상 현장의 숨겨진 운영 구조를 암시합니다.



2021년 수입 검역량: **1,277마리**

2021년 통계상 사용량: **4,252마리**

비글(개) 사용량의 폭발적 팽창 (2020-20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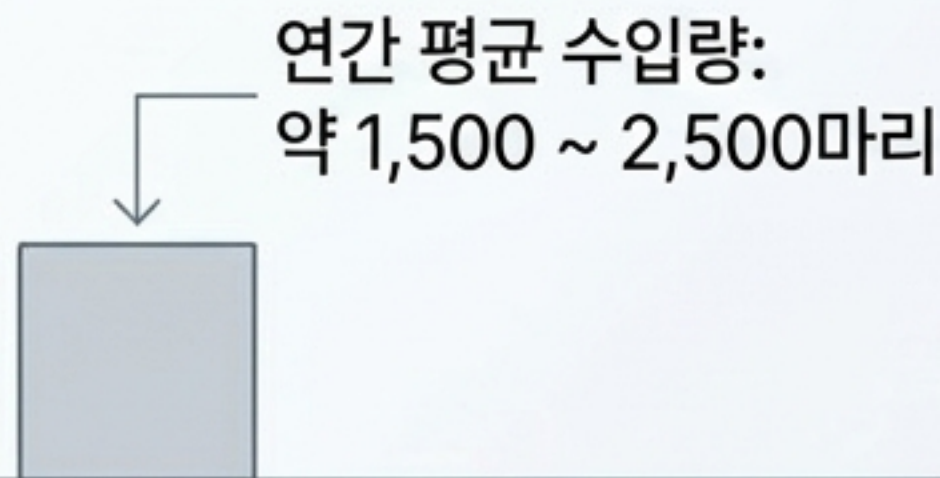
대부분 실험 전용견인 비글로 구성된 통계는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. 특히 2023년은 2만 3천 마리를 돌파하며 비임상 수요의 급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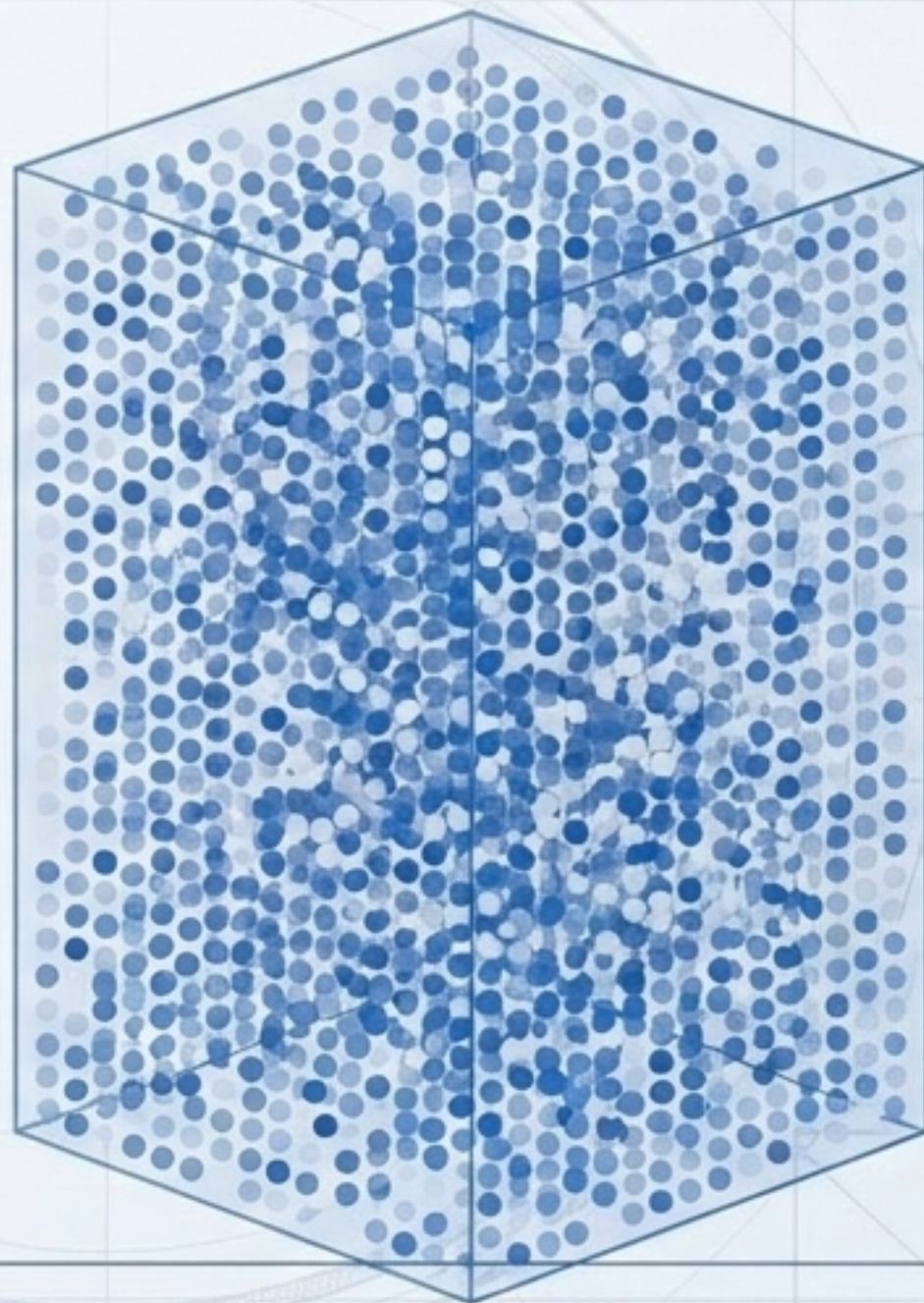
영장류를 압도하는 비글의 10배수 격차

연간 비글 수입량이 1~2천 마리 수준임을 고려할 때,
2023년의 2만 3천 마리 사용량은 수입량의 10배에 육박합니다.
이 거대한 공백은 어디서 채워지고 있는 것일까요?

2023년 사용량: **23,798마리**



**10배의 격차
(10x Multiplier)**



10배수 격차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

비글의 거대한 수치적 격차는 약 33%를 담당하는 국내 자체 사육 생산망과, 한 마리를 다수의 연구 과제에 집중적으로 중복 투입하는 현장의 '고강도 반복 실험' 실무 특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.

23,798마리 (2023년 총 사용량)

국내 자체 생산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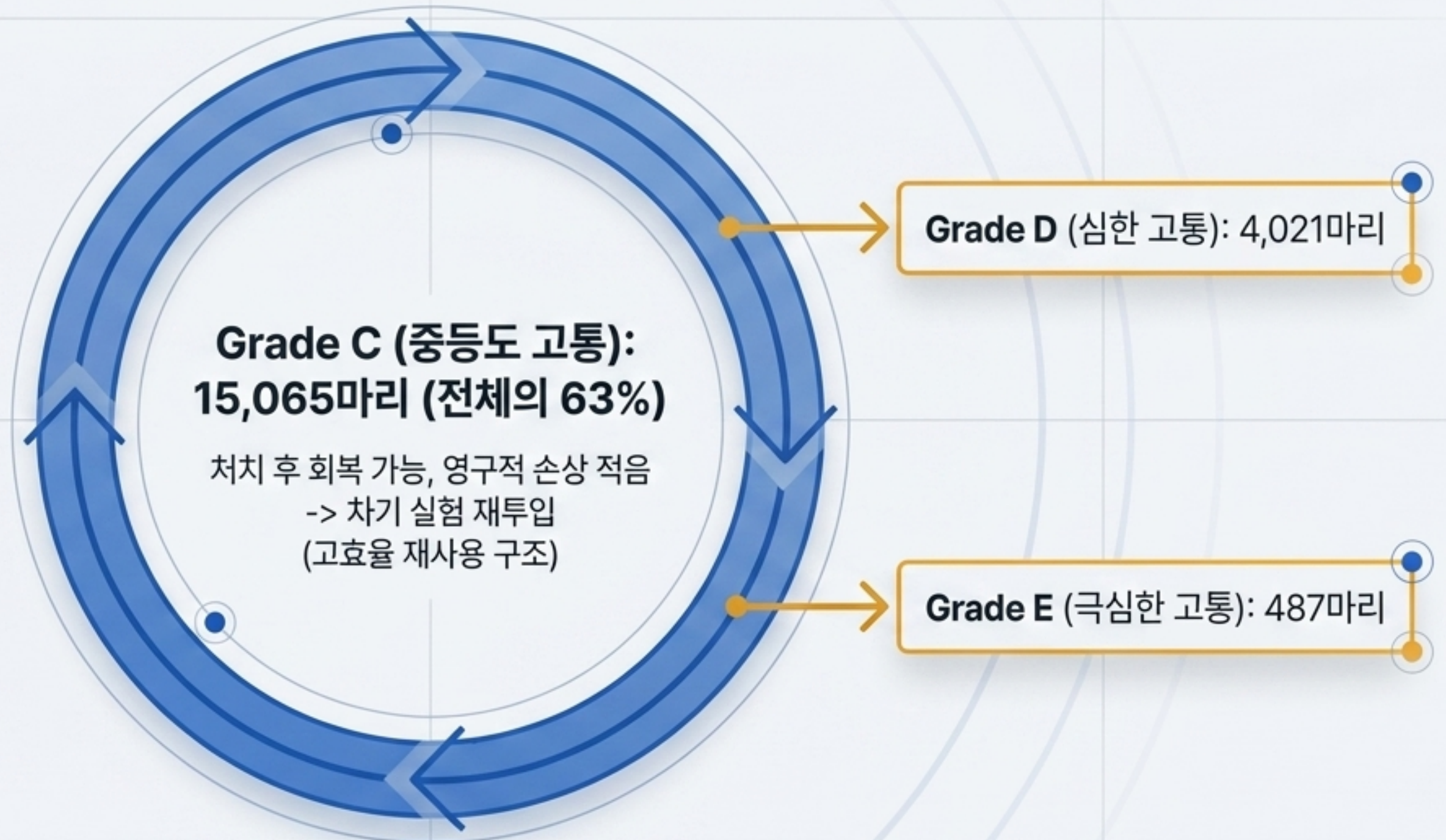
- 비중 약 33%
- 전국 26개소 생산자

고강도 반복 실험 재사용

- 수급이 용이함에도 영장류보다
훨씬 높은 중복 투입 빈도

통계로 증명된 재사용의 메커니즘: 고통등급 C의 순환

2023년 기준 개(비글) 사용량의 63%가 Grade C(중등도 고통)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이는 개체가 폐기되지 않고 회복 후 다음 데이터 생성에 다시 투입되는 거대한 '재사용 대기열(Holding Pool)'로 작동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.



종별 재사용 구조 진단 매트릭스

두 종 모두 통계상 사용량이 실제 도입량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'재사용 구조'를 띠고 있으나, 그 동인과 운영 스케일에는 명확 차이가 존재합니다. 비글은 대량 효율성에, 영장류는 자원 희소성에 기인합니다.

영장류 vs 비글 운영 구조 진단		
	영장류 (Primates)	비글 (Beagles)
공급 출처 (Supply Source)	100% 수입 의존	수입 + 국내 생산(33%)
수치적 격차 (Multiplier Gap)	약 3.3배	약 10배
자원 가치 (Value Profile)	여기에 서명하세요.	대량 운용 비용 효율성
재사용 주동력 (Reuse Driver)	PK 및 비치사성 생존 실험 한계	Grade C 고통등급 중심의 고강도 회복 사이클